| 불자 세상보기 |

경찰위상, 시민의식과 직결



이윤호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장

경찰, 국민 안전 책임지는 국가기관
경찰 폭행부터 정당 법집행 嘲笑까지
과연 이 나라 공권력은 살아 있는가

공권력 붕괴가 일반화가 된 원인은
위정자 부화뇌동한 경찰 권력 때문

공권력 지나쳐도 붕괴돼서도 안돼
경찰권 무너진 러시아 반면교사해야
공권력 바로 세워 시민 수준 보여야

경찰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회자되거나 경찰 관련 교과서에 화두처럼 등장하던 경구가 있다. 'Community deserves police!'라는 말이다. 한 나라의 경찰 수준은 그 나라 시민과 사회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사회의 수준에 맞는 수준의 경찰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시민과 사회의 수준이 높으면 그만큼 경찰의 수준도 높은 반면, 사회와 시민의 수준이 낮으면 경찰의 수준도 그 만큼 낮아진다는 것이다.

무릇 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며, 범인을 체포하는 사명'을 가진 국가권력이다. 이런 면에서 경찰은 국가와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국가기관이요 국가권력이 아닐 수 없다. 과거에는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가 전쟁과 굶주림이었다면, 냉전의 종식과 경제개발로 전쟁과 굶주림의 공포에서 벗어나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이 곧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중요한 경찰의 공권력이 무너져서 제 몫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 방송 등 언론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접하는 파출소에서의 취객들의 경찰관을 향한 폭력 등 경찰관서에서의 난동은 물론이고, 불법시위대들의 폭력과 기물파손 등 심각한 공권력에의 도전과 붕괴는 말할 것도 없고, 음주운전 단속이나 교통법규위반 단속 등 정당한 법집행을 비웃는 현실에서 우리는 과연 이 나라의 공권력은 살아 있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권력 붕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물론 공권력을 파괴하는 행위자에게 1차적 책임은 있지만 그러한 현상이 일반화 내지 빈번하게 된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우선은 경찰권력의 정당성이나 정통성이 의심받아온 우리 경찰의 슬픈 역사에서 시작되지만, 최근 들어 정치적 민주화로 정권의 정통성이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사라졌음에도 경찰권에 대한 정통성은 정치권이나 위정자, 그리고 그들에게 부화뇌동하는 경찰의 처신으로 아직도 흔들리고 있다.

우리는 세계의 역사를 통해 공권력, 즉 경찰권이 제대로 서지 않아서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경제 질서 등 사회질서가 파괴되고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주는 지 잘 알고 있다. 당연히 경찰권이 지나쳐서 경찰국가가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경찰권이 붕괴되어서는 더욱 안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현직 워싱턴 DC의 시장이 1인 시위를 하다가 현장에서 불법시위자로 경찰에 의하여 수갑이 채워지고 누구 한 사람도 폴리스 라인을 단 한 발짝도 넘지 않을 정도로 경찰권이 엄격한 반면, 경찰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경제와 사회 상당부분을 마피아가 장악한 러시아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나라, 어떤 경찰을 가져야 할 것인가 선택은 분명해졌다.

경찰의 공권력이 무너지면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통제되지 않게 되어 극단적으로는 아노미(Anomie), 즉 무규범(Normless)의 사회가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그 중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힘든 취약한 시민들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국가 공권력의 약화나 붕괴는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국민 모두의 안녕과 안전의 문제이기에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과 파괴는 곧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이는 곧 경찰은 물론이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은 곧 국가의 상징이기도 하여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의 상실이기도 하다.

당연히 공정한 법집행과 인권의 존중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이고 우선되어야 하지만 정당한 법집행에 대한 도전이나 공권력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해야 할 것이다. 공권력이 서지 않은 나라는 더 이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社說

'환희의 불교' 이끌 조계종 되길

설정 스님이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에 취임했다. 한국불교 장자종단 조계종의 행정수반이 된 설정 스님은 취임법회에서 장장 5페이지에 걸친 취임사를 불자와 국민들에게 전했다. 스님이 중요하게 내세운 가치는 '불교다운 불교'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수행가풍과 승풍을 진작하고, 종단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처럼 준비된 원고보다는 법회 직후 우정국로 특설무대에서 대중에게 호소한 설정 스님의 진심이 더욱 돋보였다.

'무시선 무처선(無時禪 無處禪).'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행할 때 복덕과 지혜, 용기와 자비가 생겨난다는 것이 요지였다. 그러면서 신심과 원력, 공심이 없고 염불이든 참선이든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불제자가 아니라는 스님의 외침에 수천여 대중은 환호로 화답했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다. 다만 불제자들이 주변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참된 불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승가가 우선적으로 바로서야 한다. 현재 한국불교는 갈등과 위기상황에 처해있다. 수년 전부터 곳곳에서 불교계 의혹이 제기됐고,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며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그래서 설정 스님은 선거과정서 제기된 비판을 자신의 부덕과 불찰로 돌렸다. 대중의 경책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제 한국불교는 새로운 발걸음을 떼야 한다. 대화합을 위한 방안 강구에 힘을 쏟고, 사부대중이 함께 호흡하며 시방세계를 품어 안아야 한다. 장자종단 조계종이 이에 앞장선다면 설정 스님이 외친 종도들의 '환희작약(歡喜雀躍)'도 먼 미래의 일은 아닐 것이다.

도난 성보에 범불교적 관심 가져야

도난됐다가 다시 환지본처한 성보들이 잇달아 보물로 지정되거나 지정 예고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고성 옥천 지장보살 및 시왕도(제2초강대왕도)를 보물로 지정했다.

보물 제1693호에 포함되어 지정된 '고성 옥천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제2초강대왕도)'는 시왕도 10폭 중 1976년 도난당해 행방을 알 수 없던 2폭 중의 1폭으로, 지난해 프랑스에서 발견되어 원래의 장소였던 고성 옥천사에 다시 봉안된 역사적인 성보이다.

특히 "작품의 완결성을 한층 높여줄 뿐 아니라 현존하는 시왕도 중에서도 구도, 색채, 필선, 인물의 표현 등 양식상 완성도가 높아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지난 10월 27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에서 지정 신청한 대비사 영산회상도, 용천사 영산회상도, 보문사 삼장보살도 등 3건 3점의 회수 도난 성보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 2014년 8월 종단과 문화재청, 경찰청의 공조로 문화재 은닉범을 검거해 환수 조치한 것이다. 이후 조계종은 관계기관, 피해 사찰들과 공조해 31건 48점의 성보를 찾고, '다시 찾은 성보 이운고불식'을 열었다. 약 1000여 일의 시간이 걸렸다.

이번 환수 성보들의 잇달아 보물 지정과 지정 예고가 된 것은 어딘가에 있을 도난 성보들이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잊어서는 안되는 것은 '문화재는 본래 자리에 있을 때 더욱 빛이 난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 성보일 경우 더욱 그렇다. 조계종이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도 도난 성보 환수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도난 성보 환수에 범불교적 관심이 커지길 바란다.



꽃으로 본 세상만사

어느 날의 윤회이야기

정상교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어느 늦여름 아침, 불보종찰 양산 통도사의 유명한 '무풍한송로(舞風寒松路)'를 스님과 함께 걸었다.

붉은 빛을 띠며 하늘로 쭉 뻗은 금강송들이 뿜어내는 입김은 아침 공기를 시원하게 해주었다. 3년만의 '경행'(徑行)이다.

3년 전, 우린 유학생이었다.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면, 향수병에 사로잡힐 때면 함께 살던 집 근처 메이지 신궁(明治神宮)의 잘 가꾸어진 도심 속 정원을 자주 걸었다. 우린 그것을 경행이라 불렀다.

메이지 왕을 신으로 기리는 메이지 신궁은 도쿄 도심 한가운데 70만평에 달하는 광대한 토지에 전국에서 헌공한 나무들로 가득 채워 조성하여서 도심 한가운데임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끼 낀 아름드리나무가 빽빽이 들어차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스님, 메이지 왕은 신으로 다시 태어났을까요? 스님께서는 윤회를 당연히 믿으시겠지요?"

스님은 웃으셨다. 답은 상관없었다. 도심 속에서 느끼는 숲속 정취가 좋아 우린 그저 걸었다.

"정 선생님, 위를 한번 올려다보세요. 저 하늘로 뻗은 나뭇가지와 거기서 자라난 잎사귀들은 옆 나뭇가지의 크기에 맞춰서 일정한 간격을 비워두고는 서로의 영역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는가요? 절대 더 자라거나 작게 자라지도 않으면서, 서로 눈이 있어 본 것도 아닐 텐데 옆 나뭇가지가 튀어나오면 그 옆 나무는 들어가 주고…. 그러면서 남의 영역을 절대 침범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경계선이 명확히 지켜지고 있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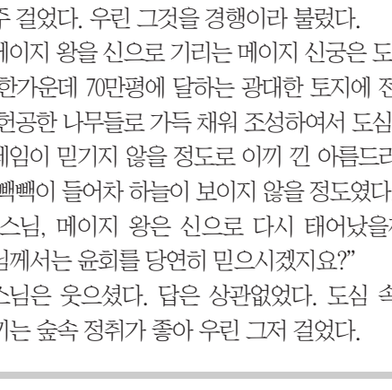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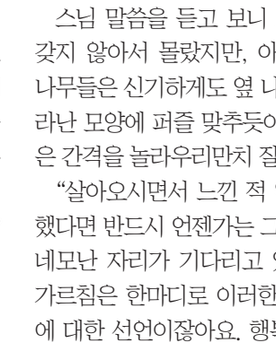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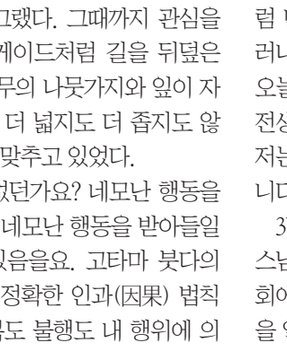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랬다. 그때까지 관심을 갖지 않아서 몰랐지만, 아케이드처럼 길을 뒤덮은 나무들은 신기하게도 옆 나무의 나뭇가지와 잎이 자라난 모양에 퍼즐 맞추듯이 더 넓지도 더 좁지도 않은 간격을 놀라우리만치 잘 맞추고 있었다.

"살아오시면서 느낀 적 없던가요? 네모난 행동을 했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그 네모난 행동을 받아들일 네모난 자리가 기다리고 있음을요.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이러한 정확한 인과(因果) 법칙에 대한 선언이잖아요. 행복도 불행도 내 행위에 의한 결과일 뿐, 행위와 결과 사이에 우연이니, 신이니, 운명이니 하는 것을 개입시키지 않았지요. 결국 중생들의 세간(世間)이란, 마치 누에가 자기 몸에서 뽑은 실로 고치를 만들 듯 스스로의 어리석은 마음에 의해 저지른 행위가 쌓아올린 세상일 뿐이지요.

윤회라…. 아직 죽지 않아 다음 생을 모르겠고 1년 전 일도 가물가물할 때가 많아 전생의 기억은 더더욱 없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거 하나만 생각합니다. 내 지금의 행동은 저 나무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반드시 언제 어딘가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그러니 지금의 나도 어제의 결과물이고, 내일의 나는 오늘의 결과물이겠지요. 어제오늘 그리고 내일이, 전생·이생·내생이 이렇게 이어져 하나일 뿐이니 저는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가려 할 뿐입니다…."

3년 만에 만나 무풍한송로를 걸으며 그래서 나는 스님과 다시 윤회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윤회에 대한 '믿음'이 아닌, 스님은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가시고 계실 뿐이었기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겸 편집인 : 박종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